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9.24(수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동북아통상과 이재근 과장(044-203-5690), 박근형 사무관(044-203-5695)

중국 산동성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키로
- 문재도 산업부차관, 샤껑 산동성 부성장 면담 -

□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샤껑(夏 耕) 산동성 부성장과 9. 23.(화) 서울에서 통상투자 협력강화, 산업협력 증진과 우리 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다.

○ 산동성은 중국 31개 성시 중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성*이며, 제3의 교역대상**이다.

* 한국의 대(對)산동성 투자법인수: 7,744개(중국전체(23,384)의 33.1%, 31개 성시 중 1위)

** 한-산동성 교역액: 329억불(한중 교역액(2,700)의 12.2%, 광동성(674), 강소성(591)에 이어 3위 (2013년 교역액, 중국해관통계 기준)

□ 문 차관은 면담에서 올해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체결한 '한중 산업협력 업무협약(MOU)'을 소개하고, 산동성 기업과 우리 업계의 활발히 교류해 두 나라가 공동 발전할 기회를 찾자고 제안을 했다.

* 한중 산업협력업무협약('14. 7. 체결): '06년 이후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단된 산업분야 장관급 회의를 재개하고, 신소재, 석유화학, 정보통신(IT) 등 두 나라 관심분야별로 관련 기업, 연구기관과 업계, 협회가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.

□ 문 차관은 면담을 기회로 산동성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산동성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.

○ 특히, 지방 세관의 통관 절차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, 예측 가능하고, 투명하게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산동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.

□ 샤껑 부성장은 산동성내 한·중 산업단지 설립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, 두 나라의 산업간 협력 활성화와 투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속해서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력채널을 운영하고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,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중국 상무부와 체결한 '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(MOU)'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 끝.

* 한중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('14.7월 체결): 양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표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박근형 사무관(☎ 044-203-569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